

‘화(化)’ 파생어의 논항 구조

노명희* · 최연화**

<목 차>

1. 서론
2. ‘화’의 어기
3. ‘X-화’의 접미사 결합 양상과 논항 구조
4. 결론

[국문초록]

한자어 접미사 ‘화’는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고유어 어기에 결합하는 예가 많지 않아 [-Native]라는 형태론적 제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한자어 접미사가 구를 어기로 취할 수 있는 데 비해 어기의 확장이 일부 N+N 구성으로 제한된다. 이는 ‘화’가 “어기X로 만듦”이나 “어기X로 됨”이라는 사동/피동의 서술성 의미를 부여하면서 선행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화’ 파생어 N2는 선행명사 N1을 대상역으로 취하여 [N1의 N2] (‘수입의 자유화’), ‘의’가 생략된 [N1 N2] (‘수입 자유화’), [N1에 대한 N2] (‘수입에 대한 자유화’) 명사구를 형성한다. 또한 접미사 ‘하다, 되다’ 등과 결합하여 [N1을 N2하다]/[N1을 N2시키다], [N1이 N2하다]/[N1이 N2되다] 구성을 형성한다. ‘X화-하다’ 결합형이 타동사와 자동사로 모두 쓰여 타동사의 목적어가 자동사의 주어가 되는 자타 양용동사를 형성한다. 또한 어기의 부류에 따라 일부 부정적 의미를 지닌 형용사 어기에서는 [N1에 대한 N2] 구성(“제품에 대한 조잡화”)이 불가능하고, [N1을 N2하다]/[N1을 N2시키다] (“제품을 조잡화하다/제품을 조잡화시키다”) 등의 타동사적 용법이 불가능하다. [N1에 대한 N2] 구성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교신저자, 대원민족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은 주로 사동적 의미로 해석되므로 타동사적 용법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주제어] 한자어 접미사, 어기 유형, 서술성 명사, 논항 구조, 사동, 피동

1. 서론

한자어 접미사 ‘화(化)’는 여기에 서술성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접미사이다.¹⁾ 명사나 어근에 결합하여 서술성 명사를 파생하므로 국어에서 ‘하다’나 ‘되다’ 등과 결합하여 서술어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아주 유용한 접미사인 것이다. ‘화’는 “X처럼/로²⁾ 만들”과 “X처럼/로 됨”이라는 의미로 사동적 의미와 파동적 의미를 동시에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이때 ‘화’ 파생어에 결합하는 ‘하다, 되다’ 접미사는 ‘화’의 의미를 단순히 투영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는 또한 ‘적(的), 성(性)’과 함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접미사의 하나이다. 이광호(2007:75~79)에서는 파생접사의 생산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바 있는데, ‘화’가 ‘-답₂-’에 이어 생산성 순위 2위로 조사되었다.³⁾ ‘화’ 파생어 계열체는 전체적으로 즉각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저빈도 단어가 다수를 구성하며, 한자어만이 아니라 외래어에도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접미사 ‘화’의 이러한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화’는 ‘적, 성’에 비해 고유어 어기에 대한 제약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를 취하는 경우도 아주 제한적이다.

‘화’가 지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화’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기능과 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어기의 유

1) 노명희(1998/2005:216~227)에서 ‘시(視)’ ‘연(然)’과 함께 서술성 접미사로 다룬 바 있다.

2) 접미사 ‘화’의 어기를 X로 보아 ‘X-하다, X-화, X화-하다’ 등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3) ‘화’는 자신보다 유형 빈도가 높은 ‘적(的), 성(性)’보다 생산성 수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형 빈도가 접사의 생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또한 ‘-답₂-’는 명사구에 결합하여 형용사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광호, 2007:125)로 단어를 파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화’가 실질적으로 생산성 순위 1위 접미사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저빈도 단어의 누적 비율이 클수록 생산성 수치가 높아 ‘화, 성, 적’의 순서로 나타났다(이광호, 2007:165~166).

형에 따른 ‘화’ 결합 양상, ‘화’ 파생어의 접미사 결합 양상을 고찰한다. 아울러 ‘화’ 파생어가 서술성 명사를⁵⁾ 형성하므로 통사적 차원에서 ‘화’ 파생어가 취하는 논항 구조 및 의미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화’의 어기

2.1. 어종 및 구성

접미사 ‘화’는 한자어뿐만 아니라 외래어 여기에도 자유롭게 결합하지만 고유어 어기에 결합한 예는 소수가 발견된다. 생산적인 여타의 한자어 접미사에 비해 최근까지 [-Native]라는 형태론적 제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광호(2007:79)에서는 고유어 어기와 결합한 예가 하나도 관찰되지 않아 고유어 어기와의 제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⁶⁾ 먼저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⁷⁾ 등재된 예를 통해 접미사 ‘화’의 어종에 따른 제약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가. 가시화, 가축화, 간소화, 간이화, 격식화, 견고화, 계량화, 고정화, 고착화, 내면화, 문서화, 문장화, 문제화, 산문화, 현대화, 현실화...
- 나. 가스(gas)화,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 레진(resin)화, 로봇(robot)화, 메틸(methyl)화, 블록(block)화, 비닐(vinyl)화, 소프트(soft)화, 아말감(amalgam)화, 아미노(amino)화, 알칼리(alkali)화, 에틸(ethyl)화, 요오드(Iod)화, 이온(ion)화, 코르크(cork)화, 할로젠(Halogen)화
- 다. 비누화, 거품화, 단물화⁸⁾

-
- 5) 서술성 명사의 범주적 특성은 형태, 통사, 화용론적으로는 명사의 특성과 같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용언의 일반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서술성 명사의 의미론적 특성을 [서술성]이라 하고 이를 “어떤 언어 단위가 어휘상적인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통사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논항을 필요로 하며 그 논항에 의미역을 할당해 주는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병규, 2009:37).
 - 6) 이 연구의 대상 자료가 세종계획 기초자료 구축 분과에서 2005년까지 구축한 자료라는 점에서 적어도 이 때까지는 접미사 ‘화’가 고유어 어기에 대한 제약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7) 이하 『표준』과 『말샘』으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라. 가장자리화, 무덤화, 손가락화, 수컷화, 암컷화, 서울화, 수술화,
물렁화, 한글화

(1가)는 ‘화’가 한자어 어기에 결합한 예이다. 대부분의 예가 한자어 어기를 취하므로 대표적인 몇 예만 보이기로 한다. 『표준』에 수록된 2음절 이상 한자어 어기에 결합한 ‘화’ 파생어는 416개로 전체 477개의 87.2%를 차지한다. (1나)는 외래어 어기에 결합한 ‘화’ 파생어로, 『표준』에 수록된 예는 58개로 12.2%를 차지한다. 이 외에 외래어 어기에 결합한 신조어의 예도 상당수 있어,⁹⁾ 접미사 ‘화’는 한자어나 외래어 어기와의 결합이 자유로운 편으로 특별한 제약을 발견하기 힘들다.

이에 비해 (1다, 라)는 고유어 어기에 결합한 예인데, (1다)는 『표준』에 등재된 ‘화’ 파생어이고¹⁰⁾ (1라)는 『말샘』에 추가로 등재된 ‘화’ 파생어이다. 고유어 어기에 결합한 예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어 고유어 어기에 대한 제약이 신어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화’가 그만큼 생산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나 외래어 어기와 비교할 때 그 수가 소수여서 아직까지 고유어 어기에 대한 제약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化)’가 ‘적(的)’ 등 여타 접미사와 구별되는 또 다른 점은 단어 이상의 단위에 결합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적(的), 론(論)’ 등 일부 생산적인 한자어 접미사의 경우 다양한 구를 어기로 취하기도 하는데, ‘화’의 어기는 ‘명사+명사’ 구성의 일부 예에 한정된다.¹¹⁾

(2) 가. [변형 생성 문법을 주창한 촘스키]적 발상이다, [소련의 소설가인

8) 『화학』 센물에 들어 있는 미네랄 이온 성분을 없애는 일.

9) 이광호(2007:75~78)에서 제시한 ‘화’ 파생어 가운데 외래어 어기에 결합한 예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모듈화, 모빌화, 에너지화, 엔터테인먼트화, 엘리트화, 다큐멘터리화, 벤처캐피털화, 빌딩화, 샤머니즘화, 쇼핑물화, 시스템화, 아이콘화, 알파화, 아파트화, 이벤트화’ 등 1회 출현한 저빈도 단어가 상당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10) 고유어 어기에 결합한 예는 3개로 0.6%이다.

11) 한자어 접미사의 부류에 따라 선행 어기가 확장되는 양상이 다양한데 이에 대해서는 노명희(2003) 참조. (2가, 나)는 노명희(2003:98~90)에서, (2다, 라, 마)는 노명희(1998/2005:223~224)에서 가져온 예이다.

톨스토이]적 작품 경향으로

- 나. [방송 광고 규제 철폐]론, [음주 문화 경종]론, [정몽헌 회장 자살
검찰 책임]론
- 다. [정치 세력]화, [정치 도구]화, [자유 시장]화
- 라. *[민주적인 정치 세력]화, *[열린 자유 시장]화
- 마. 업종 [전문화], 사태 [장기화], 학교 [정보화], 행정 [투명화]

(2가)는 ‘적’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에 결합한 예이고, (2나)는 ‘론’이 확장된 명사구에 결합한 예이다. (2다)는 ‘화’가 N+N 명사구에 결합 가능함을 보여주고, (2라)는 ‘화’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확장된 구에는 결합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즉 ‘화’가 결합할 수 있는 여기는 일부 N+N 구성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는 ‘화’가 서술성 명사를 형성하면서 선행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2마)의 ‘업종 전문화, 사태 장기화’ 등에서는 ‘화’가 N+N 구성 전체에 결합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업종, 사태’ 등이 ‘업종을 전문화하다/사태가 장기화되다’처럼 ‘전문화, 장기화’의 논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업종의 전문화, 사태의 장기화, 학교의 정보화, 행정의 투명화’ 등 조사 ‘의’ 결합이 가능하고, 선행 명사가 ‘화’ 파생어의 대상역(Theme)으로 해석된다.¹²⁾

‘화’는 또한 여기가 구로 확장되는 접미사들이 보이는 재구조화를 겪지 않는 특성도 보인다. 접미한자어 ‘시(視), 연(然), 적(的), 별(別)’ 등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기로 취하는 명사가 구로 확장되면서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가 일어난다(노명희 2020:51).

- (3) 가. [수단시]+[하다]→[[성공 수단]-시]+[하다]→[성공 수단]+
[시하다]
- 나. [대가연]+[하다]→[[경제 분야의 대가]-연]+[하다]→
[경제 분야의 대가]+[연하다]
- 다. [물질적]+[으로]→[[정신 및 물질]-적]+[으로]→[정신 및 물질]+
[적으로]

12) ‘화’ 파생어의 논항 및 논항의 조사 결합 양상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라. [직업별]+[로]→[[20대가 선호하는 직업]-별]+[로]→
[20대가 선호하는 직업]+[별로]

(3가, 나)는 접미사 ‘시, 연’이 명사구에 결합하여 구조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명사구]+[시/연하다]로 재구조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명사구로 확장되어 ‘시하다, 연하다’ 전체가 접사처럼 인식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3다, 라)도 ‘X+ 적으로, X+ 별로’와 같은 구조적 틀이 형성되어 경계 이동에 의한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접미사 ‘화’는 ‘하다, 되다’와 같은 접미사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하다, 화되다’와 같은 재분석이 일어나지 않는다.

(4) 가. [정상화]+[하다]→*[[남북 관계 정상]-화]+[하다]→
[남북 관계 정상]+[화하다]
나. [집중화]+[되다]→*[[권력 집중]-화]+[되다]→
[권력 집중]+[화되다]

이는 접미사 ‘화’의 여기서 명사구로 확장되지 못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다, 권력이 집중화되다’와 같이 선행명사가 ‘정상화, 집중화’의 논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화, 집중화’ 자체가 자립명사의 용법을 지니고 ‘하다, 되다’가 결합하지 않아도 사동/피동의 의미를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유로 ‘화하다, 화되다’로의 재구조화가 일어날 동기가 생기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의미 부류에 따른 분류

여기서는 ‘화’가 결합하는 어기를 명사의 의미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화’는 비서술성 명사, 서술성 명사/어근에¹³⁾ 모두 결합 가능하다. 먼저 어기를 비서술성 명사와 서술성 명사로 구분하고, 비서술성 명사 어기는 다시

13) 서술성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의 자격이 없는 의존형식인 어근(root)의 예도 포함하여 다룬다. 어근, 어기(base) 개념은 이익섭(1975)를 따른다.

구체명사와 추상명사로 나누어 살펴보자. 서술성 명사/어근 어기는 ‘하다’나 ‘되다’와의 결합 가능성에 따라 나누고, ‘적’과 결합 가능한 어기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해당 예만 제시하고¹⁴⁾ ‘화’ 파생어가 취하는 논항이나 접미사 결합 양상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2.1. 비서술성 명사

(5) 구체명사

- 가. 사람: 귀족-화(평민의 귀족화), 노예-화(농민의 노예화), 농노(農奴)-화(자영농의 농노화), 대중-화(자동차의 대중화), 인간-화(동물의 인간화), 민중-화(정치인의 민중화), 관료-화
- 나. 동물: 가축-화(들짐승의 가축화)
- 다. 공간: 공원-화, 도시-화(농촌의 도시화), 요새-화(군사 진지의 요새화), 초토(焦土)-화, 폐허-화(주변 녹지의 폐허화), 현지-화, 전장-화
- 라. 무정물: 각질-화, 고체-화, 광물-화, 금속-화, 기계-화(영농의 기계화), 석탄-화, 석회-화, 수소-화, 수은-화, 액체-화, 원자-화 / 문서-화, 백지-화, 상품-화(정보 산업의 상품화), 휴지-화, 제품-화(새 기술의 제품화), 현금-화(쌀의 현금화) / 영화-화, 소설-화(설화의 소설화), 연극-화, 희곡-화

(6) 추상명사

- 개성-화(대학의 개성화), 민주-화(경제의 민주화), 관례-화(절차의 관례화), 의무-화(안전벨트 착용의 의무화), 자유-화(수입의 자유화), 자율-화(두발의 자율화), 민주-화(나라의 민주화), 정보-화(지식의 정보화), 정상-화(국교의 정상화)

(5)는 비서술성 명사 중 구체명사 어기를 ‘사람, 동물, 공간, 무정물’ 등으로 구분하여 ‘화’ 파생어의 예를 보인 것이다. (6)은 추상명사 어기에 ‘화’가 결합

14)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화’ 파생어는 모두 『표준』에 수록된 예이다. ‘화’ 결합이 어색한 예도 포함되어 있으나 함께 다루도록 한다. 아울러 사전에 제시된 예문을 참고하여 가능하면 ‘의’ 결합형 예문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한 예이다. ‘화’는 서술성을 부여하는 접미사이므로 비서술성 명사인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여기에 결합이 자유로워 특별한 제약은 없는 듯하다.

2.2.2. 서술성 명사/어근

서술성을 지닌 예에는 명사가 아닌 어근(root)도 포함되므로 ‘서술성 어기’로 부르고, 부류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X에 ‘하다’가 결합하여 타동사나 자동사,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 ‘되다’와 결합하여 자동사로 사용되는 경우 등으로 구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7) ‘X-하다’ : 타동사

가속-화(도시 이동의 가속화), 강조-화, 개방-화(금융 시장의 개방화), 건축-화, 결합-화(생산 공정의 결합화), 계량-화, 계획-화(사업의 계획화), 고정-화, 공유-화(토지의 공유화), 사유-화(토지의 사유화), 식민-화, 의식-화, 입법-화(법안의 입법화), 조직-화(대중의 조직화), 집약-화(지식의 집약화), 집적(集積)-화, 차별-화(품질의 차별화), 회화-화, 실천-화(토지 개혁의 실천화), 세분-화(업무의 세분화), 분업-화(직업의 분업화), 연동(聯動)-화, 집중-화(인구의 집중화), 흥행-화(연극의 흥행화), 부식(腐植)-화(나무의 부식화)

(7)은 ‘X-하다’가 ‘금융 시장을 개방하다/생산 공정을 결합하다/사업을 계획하다/토지를 공유하다/법안을 입법하다/토지 개혁을 실천하다/업무를 세분하다/가사를 분업하다’의 예들처럼 타동사로 쓰인다. 이에 비해 다음은 여기에 ‘하다’가 결합하여 자동사로 쓰이는 예이다.

(8) ‘X-하다’ : 자동사

편재(偏在)-화(부의 편재화), 황폐(荒廢)-화(국토의 황폐화), 생활-화(질서의 생활화)

‘하다’가 결합하여 자동사로 쓰이는 여기는 ‘편재, 황폐, 생활’ 정도의 예가 발견된다. ‘교육 시설이 대도시에 편재하다/국토가 황폐하다⁵⁾/도시에서 생활하다’와 같이 쓰인다. ‘X-하다’가 자동사적 특성을 지닌 예는 많지 않으며, 오

히려 다음의 ‘되다’와 결합하여 자동사로 쓰이는 예가 더 많고 자연스럽다.

(9) ‘X-되다’ : 자동사¹⁶⁾

고착-화(분단의 고착화), 노후-화(차량의 노후화), 고립-화(개인의 고립화), 안정-화(물가의 안정화), 예속(隸屬)-화(식민지의 예속화), 경직(硬直)-화(조직의 경직화)

이들은 ‘이번 장마로 고립된 사람들이 많다/분단이 고착된 상태이다/노후된 시설과 장비/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란다/정부에 예속된 기구’ 등과 같이 ‘되다’와 결합하여 자동사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X-하다’ : 형용사

간소-화(예산의 간소화), 건전-화(재정의 건전화), 견고-화, 공고(鞏固)-화(지지 기반의 공고화), 균등-화, 균일-화(품질의 균일화), 다양-화(제품의 다양화), 단순-화, 단일-화(후보의 단일화), 동일-화, 신비-화, 신성-화, 영구-화(분단의 영구화), 과격-화(시위의 과격화), 과밀-화(도시의 과밀화), 정당-화(권력 승계의 정당화), 정밀-화(기계의 정밀화), 첨예(尖銳)-화, 특수-화, 합법-화(노동조합의 합법화), 온난-화(기후의 온난화)

‘X-하다’ 결합형 ‘간소하다, 건전하다, 견고하다, 공고하다’ 등이 형용사로 쓰이는 X에 ‘화’가 결합한 예들이다. ‘화’의 어기로 상태성을 지닌 예가 의외로 많이 발견된다. 이 부류는 더욱이 ‘화’ 파생어의 접미사 결합 양상이 둘로 나뉘어 흥미롭다. (10)의 ‘X-화’ 파생어는 사동 접미사 ‘시키다’와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데 비해 다음 (11)의 예들은 ‘시키다’와의 결합이 어색하다.

15) ‘황폐(荒廢)하다’는 “집, 토지, 삼림 따위가 거칠어져 못 쓰게 되다”(예: 황폐한 산림)나 “정신이나 생활 따위가 거칠어지고 메말라 가다”(예: 정신이 황폐하다)의 뜻으로, “거칠고 피폐하다”의 뜻인 형용사 ‘황폐(荒敝)하다’와 달리 자동사로 볼 수 있다.

16) 이들 모두 ‘하다’ 결합형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고착하다’는 타동사로, ‘노후하다’는 형용사로 쓰인다. ‘고립하다, 한정하다, 예속하다, 경직하다’ 등은 자동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들은 ‘하다’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되다’ 결합형이 더 많이 쓰이고 자연스러운 듯하여 여기에서 다루기로 한다.

- (11) 극렬-화(시위의 극렬화), 무능-화, 복잡-화, 부실-화, 심각-화, 애매-화, 왜소-화, 우매(愚昧)-화, 저속-화(대중 잡지의 저속화), 조잡-화, 중대-화, 평범-화(영재들의 평범화), 험악-화

(11)의 예들도 ‘극렬하다, 무능하다, 복잡하다, 부실하다’와 같이 ‘하다’ 결합형이 형용사로 쓰이는 X에 ‘화’가 결합하는 것은 동일하나 “복잡화시키다, *부실화시키다, *심각화시키다, *애매화시키다, ?왜소화시키다, *조잡화시키다, *험악화시키다’와 같이 ‘시키다’와의 결합이 어색한 예들이다.¹⁷⁾

다음은 ‘하다, 되다’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적’과 결합이 가능한 어기 가운데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어근에 ‘화’가 결합하는 예들을 살펴보자.¹⁸⁾

- (12) 국제-화(금융 거래의 국제화), 합리-화(기업 합리화), 노골-화, 본격-화, 불연(不燃)-화, 상승-화, 선진-화(정치 선진화), 세속-화(종교의 세속화), 적극-화, 통속(通俗)-화, 합리-화(행동의 합리화), 획일-화, 가시-화(대선 후보의 가시화), 국지-화, 동질-화, 이질-화(언어의 이질화), 다중-화, 다원-화

(12)의 X는 “국제가, *국제의, *국제를/*합리가, *합리의, *합리를’ 등의 조사 결합이 불가능하고 어미가 직접 결합할 수 없어 어근(root)에 해당한다. 또한 “국제하다, *국제되다’ 등 ‘하다, 되다’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국제적/국제화, 합리적/합리화, 노골적/노골화, 본격적/본격화’ 등 한자어 접미사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로 쓰인다. ‘화’와 결합하여 “국제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의 뜻이 되어 피동과 사동의 의미를 동시에 부여한다.

17)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예와 함께 좀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18) 이 부류에 속하는 예들이 모두 서술성 어기는 아니지만 편의상 이 절에 포함하여 다루기로 한다.

3. ‘X-화’의 접미사 결합 양상과 논항 구조

3.1. ‘화’의 문법적 특성

‘화’의 기능에 따라 ‘X-화’ 파생어가 갖게 되는 서술성 명사의 특성은 논항을 취하는 등 통사 구조와도 관련된다. 여기서는 ‘화’ 파생어에 결합 가능한 접미사와 ‘화’ 파생어가 취하는 논항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노명희(1998/2005:216~218)에서는 ‘화’가 일반적으로 서술성이 없는 명사 어기에¹⁹⁾ 결합하여 서술성을 부여하는 접미사로 ‘과학화, 기계화’의 예를 들고 있다. ‘화’가 결합하지 않은 ‘세계’는 서술성이 없어 “세계하다, *세계되다” 등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X-화’는 ‘하다’나 ‘되다’와 모두 결합 가능하며 ‘하다, 되다’가 생략되어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됨을 지적한 바 있다.

(13) 가. 온 세계의 과학화가 국제 사회 발전의 첫걸음이다.

나. 인간의 기계화가 문명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13)의 ‘과학화, 기계화’는 ‘화’가 결합함으로써 서술성을 부여하고, “과학적으로 체계화됨. 또는 체계화함”과 같이 피동/사동의 두 가지 의미로 뜻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다, 되다’와 결합하여 ‘세계를 과학화하다’와 ‘세계가 과학화되다’로 쓰인다. 그런데 ‘화’ 파생어의 또 다른 특징은 ‘세계가 과학화하다’ 또한 가능하여 ‘과학화하다’의 목적어였던 ‘세계’를 주어로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X화-하다’가 타동사와 자동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X화-하다’ 파생어는 김문오(1996:389)에서 언급한 ‘전형적 양용동사[자타동사]’에 해당한다.²⁰⁾ 전형적 양용동사의 조건은 “동일한 명사(구)를 자동사문의 주어와 타동사문의 목적어로 취할 수 있으면서 형태 변화 없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겸하여 쓸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로봇을 작동했다

19)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화’가 서술성이 없는 명사 어기에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서술성이 있는 명사나 어근에도 결합하여 사동/피동의 의미를 부여한다.

20) 연재훈(1989:169)에서는 이러한 부류의 동사를 ‘중립동사’로 부른다. 중립동사는 자동사문 구조와 타동사문 구조에 형태 변화 없이 동시에 나타나며, 자동사문의 주어와 타동사문의 목적어 사이에 동일한 명사 분포를 갖는 동사의 한 유형이다. 한송화(2000:343~359)에서도 ‘두 팔을/이 움직이다’와 같은 예를 들고 ‘중립동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시켰다)/로봇이 작동했다(되었다)’가 해당되며 접미사 ‘화’가 결합한 단어들이 여기에 속한다(예:월남을 공산화했다/월남이 공산화했다). 이들 예는 ‘하다’ 결합형이 사동과 피동의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어 ‘하다’의 용법이 상당히 광범위한 것을 보여준다. ‘되다’ 결합형만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타의 예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런데 ‘X-화’ 파생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다’나 ‘되다’가 결합하지 않고 피동과 사동의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²¹⁾

이는 특정 한자어 접미사가 결합하여 서술성 명사를 만들고 논항 구조를 변화시키는 통사적 특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명사 논항 표지인²²⁾ 조사 ‘의’, ‘에 대한’과의 결합 가능성, ‘의’의 생략 가능성 등을 통해 ‘화’ 파생어의 논항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X-화’ 파생어의 논항은 주로 대상역(월남의 공산화)으로 ‘의’, ‘에 대한’의 결합이 가능한데, 이 두 표지가 모든 예에 결합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월남의 공산화, 월남에 대한 공산화’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가 결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구체명사 어기에 결합한 ‘기계화’의 경우 ‘의’ 논항을 취하여 [N1의 N2] 구성은 가능하나 ‘의’가 생략된 ?[N1 N2] 구성이나 ?[N1에 대한 N2] 구성은 어색한 듯하다.²³⁾

- (14) 가. 인간의 기계화/인간 기계화/인간에 대한 기계화/인간에 의한 기계화
나. 인간을 기계화하다/인간을 기계화시키다
다. 인간이 기계화하다/인간이 기계화되다

21) 이러한 특성은 ‘X-화’ 파생어뿐만 아니라 서술성을 지닌 많은 한자어 명사에서도 발견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문장에서 ‘댐 건설’은 “댐을 건설하는 것”과 “댐이 건설되는 것”의 두 가지로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이와 같이 능동과 피동의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한 한자어 부류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2) 이선웅(2005:88~94)에서는 명사의 논항 표지로 ‘의, 에 대한, 에 의한, (으)로 인한’ 정도를 들고 있다. ‘의’의 경우 국어에서는 구조적 예측 가능성 때문에 ‘의’를 생략하여 기능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면이 있다.

23) ‘인간 기계화’가 인터넷에 일부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인간 기계’에 ‘화’가 결합하여 ‘인간’이 ‘기계화’의 논항으로 해석되지 않는 듯하다.

(14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술성 명사 ‘기계화’가 논항을 취하여 ‘인간의 기계화’는 가능하나 ‘의’가 생략된 ‘인간 기계화’는 어색하다. ‘인간’이 대상역임에도 ‘인간에 대한 기계화’도 어색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인간에 의한 기계화’는 가능한데, 이 경우는 ‘인간’이 행위주(Agent)로 해석된다. “인간이 기계적으로 되거나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대상역 의미로는 잘 안 쓰이는 듯하다. ‘의’ 결합형 ‘인간의 기계화’는 “인간을 기계화하는” 대상역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인간이 어떤 대상을 기계화하는” 행위주로의 해석도 가능하여 중의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의’가 생략된 ‘인간 기계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14나)는 ‘인간을 기계화하다’가 ‘인간을 기계화시키다’의 의미로, (14다)는 ‘인간이 기계화하다’가 ‘인간이 기계화되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하다’ 결합형이 타동사와 자동사로 모두 해석 가능하여 ‘하다’의 사용 영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모든 ‘화’ 파생어가 이러한 구성이 가능한지 어기의 의미 부류에 따라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앞 장에서 나눈 어기의 의미 부류에 따라 명사구 구성 및 ‘화’ 파생어의 접미사 결합 양상을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3.2. 비서술성 어기

먼저 어기가 구체 명사 가운데 사람, 공간, 무정물인 예를 하나씩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 (15) 가. 사람의 노예화/사람 노예화(?국민 노예화)/?사람에 대한 노예화
나. 사람을 노예화하다/노예화시키다.
다. 사람이 노예화하다/노예화되다.
- (16) 가. 진지의 요새화/?진지 요새화/?진지에 대한 요새화
나. 진지를 요새화하다/요새화시키다
다. 진지가 요새화하다/진지가 요새화되다.
- (17) 가. 설화의 소설화/?설화 소설화/?설화에 대한 소설화
나. 설화를 소설화하다/설화를 소설화시키다
다. 설화가 소설화하다/설화가 소설화되다

(15)는 사람, (16)은 공간, (17)은 무정물에 ‘화’가 결합한 예이다. 이들 예는 모두 [N1의 N2] 명사구 구성이 가능하나 ‘의’가 생략된 [N1 N2] 구성은 어색한 듯하다. 이들 구성에서 논항인 N1은 ‘X-화’ N2의 대상역이 되지만 ‘에 대한’의 결합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15가)의 ‘사람의 노예화’는 ‘인간의 기계화’와 동일하게 ‘사람’이 대상역과 행위주역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 생략이 어색한 듯하다. ‘의’ 생략이 어색한 예들이 ‘에 대한’의 결합도 어색함을 보여준다. ‘X화-하다’ 결합형이 ‘X화-시키다’, ‘X화-되다’ 모두에 대응되는 것은 앞의 예들과 동일하다. 이들 예를 통해 구체명사 어기에 결합한 ‘X화’ 파생어의 경우 ‘의’ 생략이 어색하고 ‘에 대한’ 명사구를 취하는 것도 어색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어기가 추상명사인 ‘X-화’ 파생어의 예를 보자.

- (18) 가. 유치원 교육의 의무화/유치원 교육 의무화/유치원 교육에 대한 의무화
 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다/의무화시키다
 다. 유치원 교육이 의무화하다/의무화되다
- (19) 가. 지식의 정보화/지식 정보화/ 지식에 대한 정보화
 나. 지식을 정보화하다/지식을 정보화시키다
 다. 지식이 정보화하다/지식이 정보화되다.
- (20) 가. 수입의 자유화/수입 자유화/수입에 대한 자유화
 나. 수입을 자유화하다/수입을 자유화시키다
 다. 수입이 자유화하다/수입이 자유화되다

(18가, 19가, 20가)의 예는 앞의 구체 명사와 달리 [N1의 N2] 명사구뿐만 아니라 ‘의’가 생략된 [N1 N2] 구성도 가능하고, 선행 명사에 ‘에 대한’의 결합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X화-하다’의 타동사적 용법이 ‘시키다’ 결합형과 유사한 의미로(‘지식을 정보화하다=지식을 정보화시키다’), ‘X화-하다’의 자동사적 용법이 ‘되다’ 결합형과 유사한 의미로(‘지식이 정보화하다=지식이 정보화되다’) 해석되는 것도 동일하다.

‘화’의 어기 X가 비서술성 명사일 때 취할 수 있는 논항 및 접미사 ‘시키다, 되다’와의 결합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비서술성 어기 ‘X화’의 논항 구조 및 접미사 결합 양상

	비서술성 명사			
	구체명사			추상명사
	사람	공간	무정물	
N1의 N2	국민의 노예화	진지의 요새화	정보의 상품화	경제의 민주화
N1 N2	?국민 노예화	?진지 요새화	?정보 상품화	경제 민주화
N1에 대한 N2	?국민에 대한 노예화	?진지에 대한 요새화	?정보에 대한 상품화	경제에 대한 민주화
N1을 N2하다/시키다	국민을 노예화하다/시키다	진지를 요새화하다/시키다	정보를 상품화하다/시키다	경제를 민주화하다/시키다
N1이 N2하다/되다	국민이 노예화하다/되다	진지가 요새화하다/되다	정보가 상품화하다/되다	경제가 민주화하다/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서술성 명사 가운데 구체명사 어기를 취하는 경우 ‘의’가 생략된 [N1 N2] 구성, [N1에 대한 N2] 구성이 어색함을 보여준다.²⁴⁾ 이에 비해 추상명사의 경우는 모든 구성이 가능하다.

3.3. 서술성 어기

다음은 X가 서술성을 지닌 예들을 부류별로 살펴보자. 여기에 ‘하다’가 결합하여 타동사로 쓰이는 예들로, [N1의 N2] 명사구뿐만 아니라 ‘의’가 생략된 [N1 N2] 구성도 가능하고, [N1에 대한 N2] 구성도 가능하다.

- (21) 가. 금융시장의 개방화/금융시장 개방화/금융시장에 대한 개방화
나. 금융 시장을 개방화하다/개방화시키다
다. ?금융 시장이 개방화하다/개방화되다
- (22) 가. 생산 공정의 결합화/생산 공정 결합화/생산 공정에 대한 결합화
나. 생산 공정을 결합화하다/생산 공정을 결합화시키다
다. ?생산 공정이 결합화하다/생산 공정이 결합화되다
- (23) 가. 토지의 공유화/토지 공유화/토지에 대한 공유화

24) 이들 구성이 성립 가능하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구체명사 어기일 때 예에 따라 또는 사용 빈도 등에 따라 성립 가능성이 다를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나. 토지를 공유화하다/토지를 공유화시키다
 다. ?토지가 공유화하다/토지가 공유화되다

‘개방하다, 결합하다, 공유하다’ 등 ‘X-하다’가 타동사인 위의 예들은 ‘X화-하다’가 자동사로 쓰이는 것이 어색한 듯하다. (21, 22, 23나)의 예들에서는 ‘X화-하다’가 ‘금융 시장을 개방화하다’와 같이 타동사로 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21, 22, 23다)의 예들에서는 ‘X화-하다’ 결합형이 자동사로 사용되는 것이 어색하고(“금융 시장이 개방화하다”) ‘금융 시장이 개방화되다/토지가 공유화되다’와 같이 ‘되다’ 결합형이 더 자연스럽다. 이는 ‘X-하다’의 타동사적 용법이 ‘X화-하다’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기가 타동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이러한 특성이 ‘X화-하다’에도 유지되면서 자동사로서의 용법이 일부 제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다음의 ‘편제하다, 생활하다’와 같이 ‘X-하다’가 자동사인 예들은 ‘X화-하다’ 결합형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들도 [N1의 N2] 명사구, ‘의’가 생략된 [N1 N2] 명사구, [N1에 대한 N2] 구성이 모두 가능하다.

- (24) 가. 교육 시설의 편제화/교육 시설 편제화/교육 시설에 대한 편제화
 나. 교육 시설을 편제화하다/교육 시설을 편제화시키다
 다. 교육 시설이 편제화하다/교육 시설이 편제화되다.
- (25) 가. 산림의 황폐화/산림 황폐화/산림에 대한 황폐화
 나. 산림을 황폐화하다/산림을 황폐화시키다
 다. 산림이 황폐화하다/산림이 황폐화되다
- (26) 가. 독서의 생활화/독서 생활화/독서에 대한 생활화
 나. 독서를 생활화하다/독서를 생활화시키다
 다. 독서가 생활화하다/독서가 생활화되다

(24, 25,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X-하다’가 자동사였던 예들은 ‘X화-하다’ 파생어가 ‘교육시설을 편제화하다’뿐만 아니라 ‘교육 시설이 편제화하다’ 모두 가능하다.

다음은 ‘X-하다’가 형용사로 쓰이는 예들이다. 이들도 ‘X화’ 파생어가 [N1

의 N2] 명사구, ‘의’가 생략된 [N1 N2] 명사구, [N1에 대한 N2] 구성을 모두 허용한다.

- (27) 가. 지지 기반의 공고화/지지 기반 공고화/지지 기반에 대한 공고화
 나.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다/지지 기반을 공고화시키다
 다. 지지 기반이 공고화하다/지지 기반이 공고화되다
- (28) 가. 분배의 균일화/분배 균일화/분배에 대한 균일화
 나. 분배를 균일화하다/분배를 균일화시키다
 다. 분배가 균일화하다/분배가 균일화되다
- (29) 가. 후보의 단일화/후보 단일화/후보에 대한 단일화
 나. 후보를 단일화하다/후보를 단일화시키다
 다. 후보가 단일화하다/후보가 단일화되다

(27, 28, 29)는 ‘지지 기반이 공고하다/분배가 균일하다/후보가 단일하다’와 같이 ‘X-하다’가 형용사인 예들에 ‘화’가 결합한 것이다. 이들도 ‘X화-하다’ 결합형이 자타 양용 동사로 모두 쓰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다음 (30-32)의 예들은 ‘X-하다’가 앞의 (27-29)의 예와 동일하게 형용사로 사용되는데 ‘X화-하다’ 결합형이 타동사로는 쓰이기 어려워 주목된다. 또한 이들은 [N1에 대한 N2] 구성도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 (30) 가. 제도의 복잡화/제도 복잡화/*제도에 대한 복잡화
 나. *제도를 복잡화하다/*제도를 복잡화시키다
 다. ?제도가 복잡화하다/제도가 복잡화되다
- (31) 가. 건축의 부실화/건축 부실화/*건축에 대한 부실화
 나. *건축을 부실화하다/*건축을 부실화시키다
 다. ?건축이 부실화하다/건축이 부실화되다
- (32) 가. 경제 위기의 심각화/경제 위기 심각화/*경제 위기에 대한 심각화
 나. *경제 위기를 심각화하다/*경제 위기를 심각화시키다
 다. ?경제 위기가 심각화하다/경제 위기가 심각화되다

(30, 31, 32가)의 예들은 ‘X화’가 ‘에 대한’ 구성의 논항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30, 31, 32나)에서 [N1을 N2하다/[N1을 N2시키다]와 같은 타동사적 용법이 불가능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에 대한’이 결합한 구성은 ‘후보에 대한 단일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사동적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사동적 의미를 표현하는 타동사적 용법이 불가능하므로 ‘에 대한’ 논항 구조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30, 31, 32나)의 예들은 ‘X화-하다’가 자타 양용동사로 사용된다는 일반화의 반례가 되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복잡하다, 부실하다, 심각하다’와 같이 모두 형용사이면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부정적 의미를 지닌 단어에 ‘화’가 결합하여 사동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인 듯하다. 의미적으로 어기의 의미와 ‘하다, 시키다’의 의미가 모순되면서 일어나는 일종의 의미론적 제약이 아닐까 한다. 또한 (30, 31, 32다)의 예들은 ‘?건축이 부실화하다’와 같이 ‘X화-하다’형보다 ‘건축이 부실화되다’처럼 ‘X화-되다’형이 더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 이것도 ‘화’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어기에 결합한 예는 능동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파동적 의미로 쓰이는 것보다 부자연스러워 생기는 어색함이 아닐까 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예들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

- (33) 가. 시위의 극렬화/시위 극렬화/★시위에 대한 극렬화
 나. ★시위를 극렬화하다/★시위를 극렬화시키다
 다. ?시위가 극렬화하다/시위가 극렬화되다
- (34) 가. 분위기의 험악화/분위기 험악화/★분위기에 대한 험악화
 나. ★분위기를 험악화하다/★분위기를 험악화시키다
 다. ?분위기가 험악화하다/분위기가 험악화되다
- (35) 가. 제품의 조잡화/제품 조잡화/★제품에 대한 조잡화
 나. ★제품을 조잡화하다/★제품을 조잡화시키다
 다. ?제품이 조잡화하다/제품이 조잡화되다

위의 예들도 ‘극렬하다, 험악하다, 조잡하다’가 형용사로 쓰이고 부정적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다. 여기에 ‘화’가 결합한 ‘X-화’ 파생어 역시 ‘하다’나 ‘시키다’와 결합이 어색하여 타동사로 쓰이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33, 34, 35다)도 ‘X화-하다’가 자동사로의 쓰임이 약간 어색함을 보여주고, ‘X화-되다’ 결

합이 더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부정적 의미를 지니므로 능동적 의미보다는 피동적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해석된다.

다음은 X에 ‘하다, 되다’ 등의 접미사 결합이 불가능하고 ‘적’ 결합이 가능한 어기, 주로 어근(root)에 ‘화’가 결합한 예이다. 즉 ‘국제적, 선진적, 세속적’과 같이 ‘적’ 파생어가 가능한 어기에 ‘화’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 예이다. 이들은 ‘X-화’ 파생어가 [N1의 N2] 명사구, ‘의’가 생략된 [N1 N2] 명사구, [N1에 대한 N2] 구성을 모두 허용한다.

- (36) 가. 금융 거래의 국제화/금융 거래 국제화/금융 거래에 대한 국제화
나. 금융 거래를 국제화하다/국제화시키다
다. 금융 거래가 국제화하다/국제화되다
- (37) 가. 정치의 선진화/정치 선진화/정치에 대한 선진화
나. 정치를 선진화하다/정치를 선진화시키다
다. 정치가 선진화하다/정치가 선진화되다
- (38) 가. 종교의 세속화/종교 세속화/종교에 대한 세속화
나. 종교를 세속화하다/종교를 세속화시키다
다. 종교가 세속화하다/종교가 세속화되다

(36, 37, 38나, 다)에서는 ‘X화-하다/시키다’ 결합형과 ‘X화-하다/되다’ 결합형도 모두 가능하여 ‘화’ 파생어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하겠다. ‘X-적’ 파생이 가능한 어기에 ‘화’가 결합한 ‘X-화’는 앞에서 언급한 명사구 구성을 모두 허용하고 접미사 결합도 모두 허용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X-하다’가 결합하여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1인 경우는 거의 모든 구성이 가능한 듯하다. 다만 ‘X-하다’가 타동사인 경우 ‘X화-하다’ 자동사적 용법이 일부 제약되고, 부정적 의미를 지닌 형용사2는 [N1에 대한 N2] 구성, [N1을 N2하다/시키다]의 타동사 구성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²⁵⁾

25) 여기서 살펴본 형용사2의 경우 부정적 의미를 지닌 어기로 제한하였지만 부정적 의미가 아닌 경우도 ‘시키다’ 결합이 불가능한 예들이 있다. 심사위원의 지적처럼 “유능화시키다, 거대화시키다”와 같이 긍정적 의미를 지닌 경우도 ‘시키다’ 결합이 불가능한 예들이

〈표 2〉 서술성 어기 ‘X화’의 논항 구조 및 접미사 결합 양상

	서술성 명사/어근				
	어기X-하다				어기X-적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1	형용사2	
N1의 N2	토지의 공유화	독서의 생활화	후보의 단일화	제품의 조잡화	정치의 선진화
N1 N2	토지 공유화	독서 생활화	후보 단일화	제품 조잡화	정치 선진화
N1에 대한 N2	토지에 대한 공유화	독서에 대한 생활화	후보에 대한 단일화	*제품에 대한 조잡화	정치에 대한 선진화
N1을 N2하 다/시키다	토지를 공유화 하다/시키다	독서를 생활 하다/시키다	후보를 단일 화하다/시키다	*제품을 조잡화 하다/시키다	정치를 선진 화하다/시키다
N1이 N2하 다/되다	?토지가 공유 화하다/되다	독서가 생활 화하다/되다	후보가 단일 화하다/되다	?제품이 조잡 화하다/되다	정치가 선진 화하다/되다

4. 결론

이제까지 접미사 ‘화’의 기능과 ‘화’파생어가 지닌 문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화’가 취할 수 있는 어기를 어중에 따라 살펴보았다. ‘화’는 아주 생산적인 접미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어나 외래어 여기에는 자유롭게 결합하나 고유어 어기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기로 취할 수 있는 구성이 일부 N+N 명사구에 한정되는데 이는 ‘화’ 파생어가 선행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화’는 비서술성 어기 및 서술성을 지닌 명사나 어근 등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비서술성 어기에는 서술성과 사동/피동의 의미를 부여하며, 서술성 어기에는 사동/피동의 의미만 부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가 결합한 파생어 ‘X-화’는 서술성 명사가 되어 주로 대상역이 되는 논항을 취한다. 즉 ‘X-화’ 파생어 N2는 논항 N1를 취하여 [N1의 N2] 명사구, ‘의’가 생략된 [N1 N2] 구성, [N1에 대한 N2] 구성 등이 대부분 가능하며, 접미사 ‘하다, 되다, 시키다’ 등과의 결합도 가능하다. 특히 ‘X화-하다’는 [N1을 N2하다]와 [N1이 N2하다]가 모두 가능하여 자타 양용동사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로 쓰이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어기의 부류별로 결합 양상을 살펴본 결과 어기의 특성에 따라 일부 예들에서 이들 결합이 어색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술명사 중 구체명사 어기에 ‘화’가 결합한 경우 ‘의’ 생략이 어색하고, ‘에 대한’ 결합도 어색한 듯하다([?]국민 노예화, [?]국민에 대한 노예화). 또 서술성을 지닌 ‘X-하다’가 타동사인 경우 ‘X화-하다’가 자동사로 쓰이는 것이 약간 제약되었다([?]토지가 공유화하다). 서술성 어기 중 ‘부실하다, 조잡하다’ 등 일부 부정적 의미를 지닌 형용사의 경우 “*건축을 부실화하다/*부실화시키다, *제품을 조잡화하다/*조잡화시키다’ 등 사동적 의미의 접사 결합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단어에 사동적 의미를 표현하는 접미사 결합이 어색하여 생기는 제약으로 보인다. 이들 예는 주로 사동적 의미로 해석되는 [N1에 대한 N2](“*제품에 대한 조잡화”) 명사구 구성도 불가능하게 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

- 김창섭,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원, 1999, 1~36쪽.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1998/2005, 216~227쪽.
 심재기 외, 『국어 어휘론 개설』, 지식과교양, 2011, 41~113쪽.
 이병규, 『한국어 술어명사문 문법』, 한국문화사, 2009, 37쪽.
 이선웅,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월인, 2005, 88~94쪽.
 최경봉, 『국어 명사의 의미 연구』, 태학사, 1998, 61~98쪽.
 한송화, 『현대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2000, 343~359쪽.

<논문>

- 김 기, 「현대 한국어의 'X+化'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김문오, 「양용동사와 사/피동사 대비 연구-한자어를 중심으로-」,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996, 387~405쪽.
 김병일, 「국어 명사구의 내적 구조」,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선아, 「한중번역에서의 '화」, 『중국어문학지』 12, 중국어문학회, 2002, 503~524쪽.
 노명희, 「구에 결합하는 접미한자어의 의미와 기능」, 『한국어의미학』 13, 한국어 의미학회, 2003, 69~95쪽.
 _____, 「한자어 문법의 변화 양상」, 『어문연구』 46-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7~34쪽.
 _____, 「한국어의 형태론적 재분석과 의미론적 재분석」, 『국어학』 95, 국어학회, 2020, 33~64쪽.
 심 나, 「한국어 한자어 접미사와 중국어 類後綴의 대조 연구」, 『어문논집』 82, 중앙어문학회, 2020, 75~115쪽.
 목정수·박통배, 「서술명사의 논항의 격 실현 양상」, 『어문연구』 4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61~88쪽.
 신선경, 「명사구 형성과 속격 표기 '-의」, 『울산어문논집』 13·14,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1999, 55~80쪽.
 _____, 「명사구연결구성의 {의} 실현 양상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학』 61, 한국어학회, 2013, 173~199쪽.
 연재훈, 「국어 중립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한글』 203, 한글학회, 1989, 165~188쪽.
 이광호, 「국어 파생 접사의 생산성에 대한 계량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성현, 「서술명사 기술을 위한 대상부류 개념의 활용-불어 사건명사의 예-」, 『프랑스어문교육』 12,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1, 129~149쪽.
 이숙의·임수중, 「한국어 의미역 인식을 위한 서술성 명사의 자동 처리 연구」, 『한국어학』 80, 한국어학회, 2018, 151~175쪽.
 이익섭,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5, 155~165쪽.

- 임동식, 「한국어 자타양용동사의 격 교체 현상과 사건 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남호, 「현대국어 파생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85, 국어연구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준, 「서술성 명사의 통사·의미론적 특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_____, 「서술성 명사의 피동화에 대한 고찰」, 『한말연구』 2, 한말연구모임, 1996, 231~262쪽.
- 최호철, 「국어의 ‘서술성 명사’ 재고」, *Journal of Korean Culture* 50, 2020, 7~86쪽.

The Argument Structure of 'hwa(化)' Derivatives

Noh, Myung-hee* · Cui, Juan-hua**

Sino-Korean suffix 'hwa(化)' is restrictive with native Korean bases even though it is very productive generally. And unlike other Sino-Korean suffixes which take phrasal unit as their bases, the bases of 'hwa(化)' can be extended only into N+N unit. The reason is that 'hwa(化)' retains both causative and passive meanings and makes the preceding base its argument.

N2 of 'hwa(化)' derivatives takes N1 as its Theme argument, and produces [N1의 N2], [N1 N2], [N1에 대한 N2] constructions. When 'hwa(化)' combines with suffixes 'ha-da, doy-da', they makes [N1을 N2하다]/[N1을 N2시키다], [N1이 N2하다]/[N1이 N2되다] constructions. 'X-wha-hada' words can be used as both transitive verbs and intransitives, showing lexical identity between the object of transitive and the subject of intransitive. When the adjective bases have negative meanings, both [N1에 대한 N2] and [N1을 N2하다]/[N1을 N2시키다] constructions are impossible.

[Key words] Sino-Korean suffix, word base, predicate nominal, argument structure, causative, passive

* SungKyunKwan University

** DaLian Minzu University

이 논문은 11월 29일 접수되어 12월 16일 1차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필자 정보〉

성명: 노명희/최연화

소속: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대원민족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메일: myenghi@skku.edu/1965367183@qq.com